누구나 쉽게 경연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 길라잡이

통일부

누구나 쉽게 경연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 길라잡이

누구나 쉽게 경연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 2016. 5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 길라잡이

(사)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통일부

누구나 쉽게 경연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2016. 5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 길라잡이

(사)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누구나 쉽게 경연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 길라잡이

Contents

1.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 길라잡이

1) 개요 04
① 국무회의란? 04
②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란? 05

2) 2016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준비 05
① 팀 구성하기 05
②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 토의 안건 선정하기 06
③ 직책 부처 선정하기(국무위원) 08
④ 각 팀원의 수행 직책 결정하기 (역할 나누기) 08
⑤ 담당 수행 직책별로 선정 주제에 대한 부처별 안건을 작성하기 08
⑥ 부처 간 토론 쟁점을 찾아내어 갈등과 대립을 현실감있게 표현하기 09
⑦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 안건에 대한 정책을 의결하기 09

3) 대본을 작성하는 방법 10
① 대본 작성을 위한 기획 회의하기 10
② 대본 작성의 개요 정하기 10
③ 대본 표지와 내지 내용보기 11
④ 대본 표지와 내지 샘플보기 12

4) 통일교육원 발간 참고자료 14

2. 2016 전국 대학생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시행 안내

1) 목적 및 개요 16
2) 시행 주제 16
3) 시행 내용 16
4) 시상 내역 17
5) 심사 기준 17
6) 대회 일정 17
7) 문의 18

3. 참가 신청 서류 (2015년 샘플 포함)

1) 참가신청서 22
2) 대본 기획서 샘플 (2015년 최우수상 팀 샘플보기) 24
3) 대본 샘플 (2015년 최우수상 팀 샘플보기) 37

4. 2015년 수상 수기

1) 최우수상 수기 62
2) 우수상 수기 63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 길라잡이

1.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 길라잡이

1) 개요

TIP_1 | 모의국무회의를 하기 위해선 국무회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아래 국무회의 의사규칙을 숙지하고 대본에 반영해야 합니다.

① 국무회의란?

가. 국무회의란 대통령이 하는 일과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정책을 심의하며 의결하는 최고정책 심의기관입니다.

나.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는 주요정책이란?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 및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 · 국민투표안 · 조약안 · 법률안 · 대통령령안
(4) 예산 및 결산, 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비상조치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해산
(8) 국회의 임시회의 집회의 요구
(9) 영전수여
(10) 사면 및 감형과 복권
(11) 행정 각부간의 권한 확정
(12) 정부안의 권한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3) 국정처리상황의 평가 및 분석
(14) 행정 각 부의 중요정책 수립과 조정
(15) 정당해산의 제소
(16)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에 대한 심사
(17) 합동참모의장 · 각군 참모총장 · 검찰총장 · 국립대학교총장 · 대사 및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18) 기타 대통령과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등입니다.

다.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이며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 (각 부처 장관 외)이 국무회의의 구성원입니다.

라. 국무회의를 여는 진행순서는 개회–국민의례–개식사–주요안건 토의 및 처리–폐회 입니다.

마. 국무회의에서 모든 국무위원의 자격은 동등하며 다수결에 의한 합의 의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바. 구성원 1/2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사. 결정한 사항들을 추진합니다.

②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란?

가. 모의국무회의란 실제 국무회의 형태를 모델로 하여 학생들이 대통령 이하 각 부처 장관의 역할을 맡아 진행하는 정책 토론회의입니다.

나. 주요 정책의 범위는 통일 5년 후의 대한민국입니다.

다.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참여의식으로 통일한국에 대한 정책을 발굴합니다.

라. 정책을 선정하여 모의국무회의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통일에 대한 관심과 생각의 수준을 높입니다.

마. 다른 부처 간의 협의나 논쟁을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의 통일의식을 지닙니다.

바. 모의국무회의를 완성하면서 국가의 통일정책에 참여해 본 주인공으로서의 자부심과 성취감을 체득합니다.

2) 2016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준비

TIP_2 |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체크 리스트를 작성하고 준비하면 예습, 복습의 과정처럼 체계적인 학습 효과가 이루어집니다.

① 팀 구성하기

– 동아리 혹은 함께 공부하는 학과 동료들과 마음을 합하여 모의국무회의 참여를 위해 팀을 구성합니다. 팀원의 인원은 대통령을 포함하여 8명에서 15명까지 가능합니다.
– 행사 참여 및 진행이 수월할 수 있도록 팀 대표(팀장)를 선출합니다.

②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 토의 안건 선정하기

TIP_3 | 통일 5년 후의 대한민국을 가상하는 만큼, “통일편익”에 중점을 두어 안건을 선정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총 시간이 6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장관이 개별적으로 각자의 정책을 발표하기보다는 여러 부처가 '협업' 하여 정책을 도출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안건을 선정 하여 토의하는 형식으로 전개하십시오.

– 안건 선정 관련 자료는 통일교육원 홈페이지(www.uniedu.go.kr)에서 통일미래 비전과 관련된 자료를 찾거나, 2014 통일문제 이해(통일부 통일교육원 발간), 통일연구원, 국립외교원(통일한국 2040 보고서), 현대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등 연구기관과 DBpia, 국회도서관 등의 논문자료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통일교육원 발간자료는 붙임 참조)

– 2009년 통일교육원이 실시한 모의국무회의 경진대회의 우수작을 참조하여 부처별 토의 안건을 선정하시면 됩니다.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자료마당–통일교육연구자료–공모전자료' 에 게시)

–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 주제는 〈동북아 新 성장동력, 통일한국!〉 입니다.
– 평화통일이 이루어진 5년 후의 통일한국을 상상해 봅니다.
– 통일 후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가는 통일한국의 국무회의라 생각하고 결정해야 할 주요 안건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진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경제 핵심이 될 것이고 국내, 국외의 위상을 떨치는 국력을 세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그렇다면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에서 심의해야 할 주요 정책 안건은 국내의 필요 정책일 수도 있고, 국외(세계적) 문제의 해결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 토의 안건 선정에 참고할 수 있는 통일편익의 예를 들어보면

통일의 국내적 편익

인구 강국 : 통일로 저출산 · 고령화 ·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를 극복

· UN '세계 인구 전망' 에 따르면 통일 시 생산가능인구가 전보다 4% 증대(약 20만여명)하고 내수 및 노동시장의 동시 확대가 가능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4)에 따르면, 통일 후 남북 병력 감축으로 약 133만명 이상의 생산가능인구 확보가 가능

군비 감축에 따른 재정효율성 증대

· 현대경제연구원(2010)에 따르면 통일 시 국방비 절감효과는 2013년~2050년까지 누적 총 1조 8,862억$
· 국방비 절감효과는 연구별로 최소 246조원(조동호, 1997)~최대 1조 8,862억$(현대연구원, 2014)까지 편차

노동 생산성 향상에 따른 산업 생산성 증대

· 통일 후 북한의 노동 생산성 102.9% 증대 예측(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신용등급이 상향되는 통일한반도(조선일보, 2014.1.6)

· 현재 남한 대북리스크로 신용등급 평균 2등급 하향화
·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금융회사는 "남북 통일 후 5년 안팎으로 국가 신용등급은 한두 단계 이상 오를 것" 이라고 전망
· 통일로 한국 신용등급이 인상되면 이자비용이 크게 감소하여 재정적 효율성 증대

고용 창출

· 국회예산정책처(2014)에 따르면 통일 후 40년간 연평균 65만 6천명, 총 2,953만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발생
· 한국정치학회(2014)는 통일 후 10년간 연간 119만명, 총 1,190만명 취업유발효과를 예측
· 통일 후 북한 3차산업 발달은 360만명의 고용창출효과 유발(통일연구원, 2014)

2,600만 관광대국(조선일보, 2014.1.14)

· 현대경제연구소(2014)에 따르면 통일한반도에는 매년 2,600만 이상의 관광객 방문 예상
· 관광객 유입을 통해 약 60만명의 취업유발효과도 발생

자원 대국, 통일한반도

· 지하자원 국내 조달로 연간 153.9억$ 절감 효과(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통일한반도의 안보적 편익 : 안보불안의 근본적인 해소

통일한반도의 인도적 편익

· 이산가족 문제의 해소
· 북한주민 인권 문제의 해소
· 냉전 청산으로 인한 사회갈등비용 절감액은 188조원(조선일보, 2014.1.6)

통일한반도의 문화적 편익

· 현대경제연구원(2014)에 따르면 2050년 통일 시, 유네스코 등재 문화재는 통일 전 10건(세계 21위)에서 12건 이상(19위)으로 상승될 것으로 예측
· 현대경제연구원(2014)에 따르면 2050년 통일 시, 하계올림픽에서 세계 5위 이내의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측

통일의 국제적 편익

통일한반도 · 중 · 일 · 러 동북아경제공동체 탄생

· 조선일보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4)에 따르면, 2040년 동북아 경제공동체는 NAFTA, EU를 제치고 세계 1위 경제권으로 발전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탄생

·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을 통해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형성

안보적 편익 : 동북아 평화공동체 형성

· 한반도 통일로 핵무기 없는 세계의 출발점

규범 · 문화적 편익

· 통일은 민주주의와 복지, 인권 등 인류보편적 가치 확산에 기여
·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의 출발점이자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관문으로 사람, 물자, 문화가 융합되어 동아시아 신문화공동체 건설의 주역이 될 것.

– 위를 바탕으로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 토의 안건의 예를 들어보면

› 경제 발전의 핵심! 한국–유럽 간의 대륙철도 증설 문제
› 취업의 길을 연다! 백두산 관광 자원 개발단 선발 정책
› 세계 평화의 대표 브랜드! 평양 유엔사무국 운영 정책

– 정책 주제 선정이 모의국무회의 개최의 주축이 되며 정책 심의 및 의결에 이르기까지의 근간을 이룹니다.

③ 직책 부처 설정하기 (국무위원)

TIP_4 | 현 정부의 주요 직책 부처가 하는 일을 살펴보면 선정된 주요 정책에 합당한 부처를 선정하기가 쉬워집니다.

– 구성된 팀의 인원과 국무회의에서 다룰 정책 주제가 결정되면 팀의 인원과 정책의 특성에 맞는 직책 부처들을 설정합니다.
– 팀 구성의 최소 단위는 대통령을 포함하여 8개의 부처입니다.
– 부처는 기획재정부장관, 국토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외교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환경부장관, 국방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교육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며 기존 모집요강에서 공고한 필수 부처를 고려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현재의 정부 구성을 기본으로 하지만 통일 5년 후의 가상에 따라 직책 부처명은 자율적으로 변경 가능하며 현재의 부처 이름을 병기합니다.
– 중요도에 따라 현 부처의 업무를 분리하여 독립시키거나 신설 부처도 창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Energy)부, 세계문화교류부, 남북관광자원개발부 등

④ 각 팀원의 수행 직책 결정하기 (역할 나누기)

TIP_5 | 팀원들의 성격과 재능을 고려하여 각각의 수행 직책을 결정하면 훨씬 흥미롭고 사실적인 모의국무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선정된 정책 주제에 대한 각 부처의 역할을 나눕니다.
– 각 정책 부처의 목적과 성격을 자세하게 조사합니다.
– 영상, 음향 효과를 활용하여 각각의 특성에 따라 수행 직책의 임무를 표현합니다.

⑤ 담당 수행 직책별로 선정 주제에 대한 부처별 안건을 작성하기

TIP_6 | 각자 발표할 정책을 안건으로 정리하면 토론 쟁점을 찾고 대본을 작성하는 데에 용이합니다.

– 선정한 주제의 주무부처는 간략히 모의국무회의 안건을 작성합니다.
– 주무부처가 아닌 부처라도, 해당 안건에 관련된 입장이 있다면 그 부처의 입장까지 담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목차에 '유관부처 협의 결과' 등의 목차로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1개의 안건에 대한 각 부처의 입장을 주무부처가 총괄하여 정리, 안건을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 안건의 분량은 10페이지 내외로, 현재 상황, 통일 후 5년 동안 해당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정책추진 원칙 및 고려사항, 대응방안 등을 담습니다. 이 목차는 예시일 뿐, 자유롭게 작성하면 됩니다. 자유롭게 정책과 관련한 제언을 담으십시오.
– 작성한 안건은 대본에 '요약'으로 수록하여 제출하십시오.

⑥ 부처 간 토론 쟁점을 찾아내어 갈등과 대립을 현실감 있게 표현하기

– 선정된 정책 주제에 대한 각 부처의 연관성과 현실적인 문제점을 모색합니다.
– 정책 주제에 대한 각 부처의 찬성과 반대 의견을 구성합니다.
– 한가지의 정책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다른 부처 간의 갈등과 대립이 치열해지기도 합니다. 직책 부처 마다 운영 이익이 창출되어야하므로 예민한 부분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주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 담당 부처의 존재를 강하게 부각시킬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눈빛과 강한 몸짓, 호소력 있고 검증될 수 있는 사례 등의 예를 들어 줍니다.

⑦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 안건에 대한 정책을 의결하기

– 각각의 부처별 의견과 주장, 갈등과 대립들을 유지시키면서 토의 안건에 대한 정책 결정을 도출하며 긍정적으로 방향을 제시하여 줍니다.
– 의결된 정책이 모의국무회의의 기본 목적과 세부 사항에 잘 융합될 수 있도록 통일된 구성을 기획합니다.

3) 대본을 작성하는 방법

① 대본 작성을 위한 기획 회의하기

TIP_7 | 대본 전체 구성이 탄력적이어야만 모의국무회의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대본 작성을 위해 각 수행 직책별 의견과 주장을 취합합니다.
- 최대 60분을 초과하진 않는 범위에서 몇 개의 안건, 혹은 몇 개의 장면(Scene)으로 모의국무회의를 연출할 지를 토의합니다.
- 대본의 전체적인 흐름은 서론(정책 배경), 본론(정책 심의, 토론), 결론(정책 의결,결정)을 전제로 합니다.
- 정책 주제의 도입, 정책 주제에 대한 부처별 토론, 정책 주제에 대한 각 부처별 갈등과 반론, 협의, 의결을 위한 대단원으로 구성하여 정책 결정을 도출합니다.
- 기획 회의를 마무리하고 대본 작성을 시작합니다.

② 대본 작성의 개요 정하기

TIP_8 | 1차적으로 구성된 대본은 연습과 훈련을 거듭하면서 보다 세련된 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정, 첨가 할 수 있습니다.

* 예선 심사에서 결선으로 진출할 때까지는 가능

- 표지와 내지를 구분합니다.
- 표지에 담을 내용과 내지에 담을 내용을 구성합니다.
- 표지를 포함하여 안건 당 10페이지 내외로 모의국무회의 대본을 만듭니다.

대본 규격의 예를 들어보면 A4 사이즈로, 글자 포인트는10 혹은 11,
행 간격 160, 상/하 여백 20mm, 좌/우 여백 25mm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대본에는 효과적인 의사전달을 위해 각 국무위원들의 행동, 표정, 몸짓 등의 표현을 첨부합니다.
- 음향이나 영상물이 제시되는 장면이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 요약분(3페이지 이내)의 주요내용을 붙임으로 첨부합니다.

③ 대본 표지와 내지 내용 보기

구 분			내 용	페이지
1	표지 기재내용	제목	동북아 新 성장동력, 대한민국!	2
2		주제	모의국무회의 정책 관련 주제	
3		팀명 및 팀 대표이름	팀명과 팀의 대표 이름	
4		연락처 및 날짜	팀 대표 연락처 및 제출 날짜	
5	내지 기재 내용	등장인물	수행 직책 및 팀원 이름	10페이지 내외
6		Chapter	각 Chapter별로 국무회의 대본 구성 화면의 영상이나 음향, 등장인물의 행동 등도 기재	
7		페이지	페이지 기재	
8	요약	안건	주요 내용	1건당 3페이지 내외

④ 대본 표지와 내지 샘플 보기

〈표지 샘플〉
2016 전국 대학생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대본

동북아 新 성장동력, 통일한국!

–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 토론 안건 :

– 팀명 및 팀 대표 이름 :

– 연락처 (H.P) :

년 월 일

〈내지 샘플〉
2016 전국 대학생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대본

○ 제목 : 동북아 新 성장동력, 통일한국!

○ 안건 :

○ 등장인물 (직책부서 포함)

○ Chapter 1

– 필요에 따라 Chapter와 Scene별로 대본을 구성합니다.

4) 통일교육원 발간 참고자료

* 모든 자료는 통일교육원 홈페이지(www.uniedu.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구분	자료명	발간 연도	주요내용	대상
기본교재	통일문제이해(7장)	매년 발간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 주변정세의 변화와 통일환경, 통일정책과 통일방안, 남북관계의 전개, 통일미래의 비전과 과제를 설명	매년 발간
주제가 있는 통일강좌	통일 필요성의 재인식	2011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통일 필요성의 논리를 재정립	교사 및 일반인
	남북경제공동체의 형성 방안과 과제	2012	남북경제공동체의 개념과 형성과정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구체적 실행방안 모색을 통해 경제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제고	
	한국과 독일, 분단과 통일 이야기	2012	독일과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 관련 역사적 현장이나 상징물 등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를 통해 통일과 분단의 의미 조명	
	통일비용보다 더 큰 통일편익	2011	통일비용 · 분단비용 · 통일편익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다양한 통일편익을 제시	
	독일통일 20년 : 현황과 교훈	2009	독일의 통일과정과 통일이 된지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분야별 통합현황을 알아보고, 독일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파악	
영상자료	대륙열차	2013	선조들이 독립의 염원과 의지를 담아 탔던 시베리아횡단열차를 소개하고 통일은 한반도의 지리적 이점을 살려 경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임을 제시하는 영상	고등 학생 및 일반인
	통일 꼭 해야 되나요	2012	중학생 눈높이에서 분단비용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통일이 되면 분단비용이 사라지고 다양한 통일편익이 발생함을 설명	
	통일창업 위대한 벤처	2012	통일된 한국에서 통일 1주년 기념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통일과 관련된 벤처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대결을 한다는 이야기	
	우리의 선택은 통일입니다.	2012	통일비용, 분단비용, 통일편익 등을 설명하고 통일 미래 비전 및 통일에 가까워지는 방법 소개	
	분단에서 통일로	2012	고등학교 교과 내용을 바탕으로 분단의 원인과 폐해, 우리의 통일노력, 통일 미래 비전 등 분단과 통일 문제 설명	
	통일, 미래를 위한 약속	2012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 통일의 비용과 편익 등에 대해 설명하고 통일 미래의 비전과 준비 과제 제시	
	세 친구의 1박 2일	2012	중학생 눈높이에서 분단의 원인과 폐해, 우리의 통일노력, 통일 미래 비전 등 분단과 통일 문제를 1박 2일 형식으로 현장감 있게 설명	

2. 2016 전국 대학생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시행 안내

주 최: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후 원: 통일부

1) 목적 및 개요

통일한국 미래리더 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는 통일 이후 한국사회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변화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과 참신한 상상력을 키우고, 그로부터 도출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마당입니다. 이러한 모의국무회의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학생 세대에서 통일과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 통일이 가진 의미에 대해 관심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2) 시행 주제

[동북아 新 성장동력, 통일한국!]

3) 시행 내용

남북통일 이후 5주년을 가정하여 통일 이후 5년간 정치 · 경제 ·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변화상을 상상하여 평가하고 통일편익 극대화를 통해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정책들을 수립하여 모의 국무회의를 통해 시연합니다.

- 참가 자격: 전국의 대학, 대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대학생
-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홈페이지(www.kaurinu.or.kr)를 통해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 참가신청서 (기획안과 팀 소개, 팀원 명단 포함), 모의국무회의 대본 (60분용)
- 참가신청서의 경우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홈페이지(www.kaurinu.or.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kaurinu21c@gmail.com으로 접수
- 참가비 없음 (단 교통 및 숙박 비용 지원 없음)
- 팀은 최소 8명에서 최대 15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
- 수행 직책은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장관 가운데 대통령 1인 포함 7개 부처 이상의 장관들이 각 부처별 의제와 정책들을 발표한다.

(단 최소 인원의 경우 대통령,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외교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을 필수 부처로 구성하여 참여한다. 또한 현재의 정부 구성을 기본으로 하나 부처명의 경우 통일 이후 5년이라는 컨셉에 따라 자율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부처명을 현재의 부처명으로 병기한다.)

4) 시상 내역

최우수상 1팀 : 상금 200만원 및 통일부장관상
부상 – 팀 전원 백두산 고구려유적 등 5박6일 해외연수

우수상 1팀 : 상금 150만원 및 통일교육원장상

장려상 1팀 : 상금 100만원 및 통일교육원장상

5) 심사 기준

심사 기준 : 소재의 참신성, 자료 준비 및 활용도, 미래통일정책에 대한 공헌도, 의사소통능력, 국무회의 목적 달성도, 자세 및 팀웍 등

6) 대회 일정

- 3월 28일 ~ 5월16일 : 신청 접수 (5월 16일 20시 이메일 신청 접수 종료)
- 5월 17일 ~ 5월 19일 : 서류 심사 진행, 9개 팀 1차 선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 5월 21일 : 예선 (오후 13시 30분) – 팀당 60분간 진행 (9개 팀 경연 후 3개 팀 선정)
- 5월 28일 : 본선 (오후 12시 30분) – 팀당 50분간 진행

* 예선 (5월 21일 토요일)

예선 장소 : 통일교육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23)

자료명	자료명	자료명	장 소
5/21(토)	13:30~14:30	예선 오리엔테이션 및 순서추첨	강당
	14:30~15:30	예선 대회 1 (1팀~3팀)	대회장1,2,3
	15:40~16:40	예선 대회 2 (4팀~6팀)	대회장1,2,3
	16:50~17:50	예선 대회 3 (7팀~9팀)	대회장1,2,3
	17:50~	귀가~	

* 본선(5월 28일 토요일)

본선 장소 : 서울지방조달청 PPS Hall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자료명	자료명	자료명	장 소
5/28(토)	12:30~13:00	본선 오리엔테이션 및 순서 추첨	대회장
	13:00~13:50	본선대회 Ⅰ (1팀)	
	14:00~14:50	본선대회 Ⅱ (2팀)	
	15:00~15:50	본선대회 Ⅲ (3팀)	
	16:00~17:30	통일토크콘서트	
	17:30~	본선 결과 발표 및 시상	

7) 문의

전화 : 02-6053-2001 〈2016 전국 대학생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사무국〉

전자우편: kaurinu21c@gmail.com

붙임 1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대통협) 현황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개요]

◎ 연 혁

'83.8.27 북한·통일관련 학술행사 개최 등 대학통일문제연구소간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창립(초대회장 : 민병천(동국대), 85개 대학연구소 참여)

- '09.2.4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로 명칭 변경
- '10.11.16 「(사)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설립 등기
- '15.3.1 김태일 협의회장 취임(現在 75개 대학, 82개 연구소 가입)

※ 역대 회장 : '05년 노태구(경기대), '06년 이서행(한국학중앙연구원), '07년 우성대(목포대), '08~' 11 김연철(한남대), '12~ '14 유호열(고려대), '15~ 김태일(영남대)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개요]

◆ **설립일자** : '10.11.16(' 12.2~현재, 상임대표 : 김태일)

◆ **설립목적** : 민간차원에서 대학생과 시민의 건전한 통일교육, 통일문제에 관한 학술 연구 및 학문 교류와 정책 개발을 통하여 통일학 정립과 통일정책 발전에 기여

◆ **주요사업**

- 대학생 및 시민의 건전한 통일관 정립을 위한 교육
- 통일정책의 연구와 건의
- 연구 발표 및 토론회 개최
- 연구소 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협의

◎ 임원진 명단

보 직	성 명	소 속
상임대표	김 태 일	영남대학교
보 직	전 동 진	신라대학교
	김 재 한	한림대학교
	김 창 희	전북대학교
	남 궁 영	한국외국어대학교
	박 명 규	서울대학교
	이 수 훈	경남대학교
	김 학 성	충남대학교
고 문	강 성 윤	동국대학교
	김 연 철	한남대학교
	유 호 열	고려대학교
감 사	진 희 관	인제대학교
사무총장	김 정 수	영남대학교
사무국장	박 영 식	영남대학교
간 사	손 미 란	영남대학교

참가 신청 서류
(2015년 샘플 포함)

1) 참가신청서

1. 팀 소개 및 팀 대표 인적사항

No	
소속	(소속 대학, 학과 및 동아리)
팀 소개	(300자 내외)

No	
소속	(소속 대학, 학과 및 동아리)
팀 소개	(300자 내외)

2.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 경연 기획서

〈경연주제〉_____

* 모의국무회의 참여 동기와 경연주제, 문제의식과 기획의도 그리고 경연에서 발표 할 주요정책 등을 기술
* 필요시 자유 형식으로 별지 사용 가능, 별지 사용 시 주제만 기술 후 A4용지 2매 이내로 별도 문서 파일을 첨부

위와 같이 2016 전국 대학생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에 참가를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대표 신청인 (사인)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귀중

팀원 명단 및 정보

No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역할 부처 (부처명 변경시 현행 부처명 병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 대본 기획서 샘플 (2015년 최우수상 팀의 예)

2015 전국대학생 통일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기획서

–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 토론 안건 : 1) 신의주 국제물류 · 산업도시화 추진
2) 고구려 역사 · 문화 단지 조성 계획

– 팀명 및 팀 대표 이름 : 한맥(韓脈), 대표 김우섭

– 연락처 (H.P) :

2015년 5월 18일

기획서 샘플

2015 전국 대학생 통일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기획서

○ 제목 : "통일 10주년, 선진평화강국으로 비상"

○ 안건 : 1) 신의주 국제물류 · 산업도시화 추진

○ 등장인물 : 대통령,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환경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교육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Ⅰ 추진배경

1.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경제특구 지정

가. 상대적으로 낙후한 북한 지역 경제 개발

나. 북한 지역 발전 예산을 위한 외자 유치

2. 통일 한국의 대외적 경제 입지 상승

가.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서의 경제적 입지 확보

나. 해양과 대륙을 잇는 요충지로서 해양 수송과 육로 수송의 연결점

3.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 발전 기회 제공

가. 경제특구에 기존의 경제 강국들과 함께 개발도상국 기업을 유치 세계 경제 편입 기회 제공

나. 한국의 경제 개발 성공 사례에 대한 해외 컨설팅 제공

기획서 샘플

Ⅱ 추진계획

1. 신의주 경제특구 개발

가. 해외 선진 기업 유치를 통한 국내 시장 규모 확대

나. 개발도상국 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개발 지원

다. 한국의 경제개발 모델을 제시함으로서 한국 경제적 위상 증대

라. 신의주의 교통 인프라를 통한 국제 육로 무역의 확대

2. 신의주 경제특구를 위한 산업 인프라 구성

가. 기초 기반 시설인 전력망 확대 구축

나. 기존에 설립된 교통 인프라의 확대

다.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라. 기업 유치를 위한 거주 구역 설계

Ⅲ 기대효과

1. 동북아 경제 협력

동북아 경제 물류의 중심지로서 한국 중국 러시아의 경제 협력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경제협력의 경우 세계 경제 선도 국가들인 동북아 국가들의 경제 협력으로 국제 경제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 확대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또한 동북아 국가들의 경제 협력으로 인해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한 중 러의 국경 분쟁 예방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 나진 선봉지역에 구축된 철도를 통해 해양 수송 물류 또한 쉽게 육로 수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수출 활로의 확대가 가능하다.

2. 세계 경제에서의 한국 위상 증대

통일 이후 현재 한국의 괄목할만한 경제적 성장은 1970년대 이후 다시 세계 개발도상국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의 경제 개발 사업을 개발도상국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함으로서 제 3세계 국가와의 우호 증대와 함께 세계 경제 개발에 이바지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한 한국의 경제특구에서 세계 각국의 우수한 기업들이 경쟁 및 협력 사업을 진행함으로서 한국 시장의 세계 영향력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통일 이후 전쟁 위협이 없어진 한국의 경제 시장을 알려 해외 투자 유치의 강화가 가능하다.

기획서 샘플

3. 동북아 물류 중심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물류 허브로서 해양과 육상을 잇는 통로가 되어 세계 무역 물류의 중심지로서의 입지 강화를 통해 한국의 경제적 입지 및 중간 무역을 통한 수출 활성화가 가능하다.

통일 이후 아직까지 개발 되지 못한 북한 지역을 철도 및 육상 수송으로 인한 거점 도시의 개발이 가능하다.

Ⅳ 참고사항

*유관부처 토의사항

1. 행정차지부

가.

국제 산업 · 물류 도시를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각종 정보, 특히 파급효과가 고가치, 대용량 데이터(부동산, 교통 등)를 집중적으로 제공,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의 외국어로도 정보를 제공하여 국제적 투자 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또한 수요가 높은 여러 핵심데이터를 표준화하고 품질을 고도화하여 배포. 신의주시에 특히 필요한 부동산, 교통, 건축 관련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제공.

구분	분야 명 (개방 규모)	개방내용
1	부동산 종합정보 DB (680만건)	토지(임야)정보, 공시지가, GIS통합정보(전국 680여만개 이상의 건축물 및 공간정보 융합) 등 23종 정보를 공간정보 기반으로 통합 개방
2	전국 상가 DB (270만건)	SKT, 네이버, BC카드 등 10개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여,' 15년까지 상가데이터 오류율 5% 절감, 상가좌표, 전화번호 등 개방
3	국민건강정보 DB (1,600억건)	진료 · 투약 · 검진 등 개인건강정보(PHR) 오픈API 제공('15 대형포털 → ' 17년 점진적 확대), 건강표본DB(비만, 치과 등) 15종 구축 · 개방
4	농수축산물 가격 DB	농축수산물 경락 · 유통정보 원천데이터 9종 전면개방, 오픈API 9개 구축, 품질개선 및 표준화 등
5	지자체 행정 DB (11억건)	음식점, 세탁소 등 주민생활 밀접 인허가 데이터 530종을 창업활동 정보로 제공 · 활용
6	건축행정시스템 DB (680만건)	건축물 도면 · 유지점검 · 사용정보 · 에너지소비 등 18종 추가 개방 및 통합정보 유통체계 구축, 오픈 API서비스 기능 10종 신규 개발
7	등산로 · 국가생물종 DB (650만건)	'17년까지 전 지자체 등산로 DB(603개 → 3,368개)구축 및 통합관리체계 확립, 생물종 DB의 단계적 확충(447만개 → 650만개)
8	교통정보 · 교통사고 DB (50만건)	교통사망사고 위치정보, 스쿨존 등 사고다발지역 정보를 신규로 제공하고, 돌발정보, 안전정보 등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9	실시간 수도정보 DB (5,000만건)	전국 수돗물 공급 전과정(취수장→수도꼭지)의 실시간 수질 및 물 공급량 정보 등 총 37종을 오픈API 서비스 제공(~ '17)
10	수산물 DB	수산물 규격화 및 품질개선 통해 생산 · 재고 · 수입, 가격 등 유통정보 15종으로 개방 확대

기획서 샘플

나.
광역시가 되면 각종 사업 및 예산집행이 자유로워 짐. 경상남도 울산시가 울산광역시가 되기 원했던 가장 큰 이유도 예산 집행 때문. 광역시로 독립하게 되면 자체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환경개선과 도시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에 유리함. 국제 산업 · 물류 허브도시로 비약하고자 하는 신의주시에 있어서 광역자치단체로의 승격은 엄청난 발전을 가져오는 초석이 될 것.
허나 균형발전을 꾀하는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는 개발되어있는 신의주시를 승격시키는데 반대할 것이다. 광역시 승격은 해당 지역에는 이득일 수 있으나 승격 전 소속되어있던 도 입장에서는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기 때문. 그렇다 보니 통일을 맞이하여 지방자치제 시범 시행 이후 이렇다 할 광역시 승격은 없는 상태. 따라서 통일 10년을 기념하여 신의주시를 광역자치단체로 승격시켜 거점지역으로 만들어 평안북도와 그 이후의 지역까지 경제파급효과가 발생하도록 함.

2. 환경부

가.
환경부는 신의주 도시건설이 진행함에 따라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역할을 맡을 수 있음. 첫째, 국제산업 · 물류도시의 건물 건설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건물이 친환경적 원자재를 사용하고 있는지, 건설이 되고 난 뒤에 쓰이는 데 있어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 · 검사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음. 환경영향평가사에 대한 인력수급은 걱정이 없는 실정이다. 2015년부터 시행해온 자격시험이 통일 이후 급격하게 유망한 직종으로 바뀌게 되면서 인력수급에 큰 차질을 예방할 수 있었음.

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과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으로 인한 개발. 먼저 BEMS를 이용한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가능케하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건물을 건축함과 동시에 FEMS를 통한 한국형 스마트 공장을 건설, 친환경적 산업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역할을 맡을 수 있음. 이는 국제산업 · 물류도시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국가의 성장목표 중 하나인 저탄소 · 녹색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진행될 것.

다.
거주지 건설문제에 대해 여러 부서(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와 함께 에너지자립형 에코에너지시티를 건설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음. 중국의 값싼 태양광 셀

기획서 샘플

모듈로 인해 도래한 '그리드 패리티' 현상으로 인해 BIPV형식의 태양광발전 아파트도 과거보다 싼값에 건설할 수 있게 됨. 이 점을 십분 이용하여 신의주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이로 인한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혐오 · 기피시설로 취급받던 쓰레기 소각장 · 매립지, 폐기물 처리장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 순환체계를 구축하여 님비현상의 극복과 에너지공급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미래 지향적인 도시로의 발전도 꾀할 수 있음.
신의주 경제특구 에너지 관리 사업에 있어서 각각 예산 문제에 대해 기재부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해 창조과학부 국토부와 갈등이 일 것으로 예상.
에너지 관리 기술에 있어서 건물 내부에 많은 센서와 새로운 기술이 실현되어야 하는 만큼 창조과학부의 경우 신기술 개발과 실용화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야하고 국토부의 경우도 신기술 적용을 통한 새로운 공법으로 건축을 해야 하는 만큼 건물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신하기 어렵고 상당한 예산이 들어 기재부와의 큰 마찰이 예상.

3. 문화체육관광부

가.
신의주가 국제산업 · 물류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바이어들의 마음을 사로 잡아야 할 것. 바이어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바이어가 신의주에 머무는 기간 동안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생각. 바이어들이 한국 전통의 양식으로 지은 한옥호텔에서 숙박한다면,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신의주가 국제산업 · 물류도시의 성공으로 이어질 것.(인천 송도에 위치한 한옥호텔 경원재가 표본 모델)
신의주는 연평균 기온 8.7℃, 1월 평균기온 −9.8℃, 7월 평균기온 24.1℃로 비교적 추운 기후에 지역. 한옥호텔을 온돌식으로 운영한다면, 이용 고객에게 온돌의 우수함을 알릴 수 있으며, 따뜻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

4. 고용노동부

가.
신의주 인근 구 북한지역의 노동력을 사용한다면 구 북한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데 분명히 기여할 수 있고, 고향을 떠나 남한으로 내려오는 주민들을 방지할 수도 있음. 큰 시장을 찾아 남한으로 내려오는 구 북한지역 주민들을 막기 위해서는 구 북한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창출 및 내수시장을 활성화해야 함. > 국제산업–물류도시의 개발은 신의주 지역 포함 평안도 지역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기획서 샘플

지역 주민들의 경제수준 발전을 위한다고 하지만 신의주를 국제산업-물류도시로 개발하는 것 자체가 환경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환경부와의 갈등은 불가피. 하지만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북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 개발 및 일자리 창출 또한 필수적. 따라서 국토개발부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친환경'을 모토로 삼아 도시개발에 힘써야 할 필요가 있음. ex)압록강과 서해의 물 환경의 보존과 수질관리를 통해 물을 아끼는 도시 이미지 구축.

또한 내국인의 고용 비율 선정에 있어 국내 의무 고용비율을 높이려고 하는 고용 노동부와 내국인의 고용비율의 증대의 경우 외국 기업 유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외교부와의 마찰이 예상.

5. 국방부

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와의 갈등이 일어날 것을 예상. 신의주 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갈등이 일어날 것. 기획재정부와는 예산 문제로 신의주 공항을 시설만 보수를 하여 공항과 군부대를 합칠 것인가, 아니면 따로 분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임. 그리고 국토교통부와는 신의주 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찬성을 하는지, 그리고 찬성을 하면 어느 지역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갈등이라기보다는 서로 협력을 하여 해결책을 알아나갈 것.

또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위해 국경 감시에 있어서 자유를 주장할 산업통상부와 달리 국내의 치안 및 안보를 위해 국경 감시를 강화하려는 국방부와 상당한 마찰이 일 것으로 예상.

6. 해양수산부

가.

해양관련 레저스포츠와 여객선박의 설치를 통한 관광산업 형성을 꼽을 수 있다. 신의주가 국제산업 물류도시로 발전하게 된다면 신의주는 눈부신 성장세를 보이며 많은 국내의 기업들과 해외기업들이 입주하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가 요구될 것. 그 중에 하나로써 해양 레저 스포츠와 여객을 들 수 있을 것. 신의주가 압록강을 통해 쉽게 서해로 나갈 수 있다는 이점이 존재하여 해양스포츠가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음. 신의주는 또한 중국의 단둥지방과 500m밖에 떨어지지 않아 손쉽게 여객선을 통해 중국으로 여행을 할 수 있으며 서해에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중국의 동부 지방 여러 도시에도 여행을 할 수 있게 됨. 이러한 신의주의 지리적 이점을 이용한다면 국제산업 물류도시 뿐만 아닌 해양관련 관광도시로써의

기획서 샘플

역할 또한 수행하여 많은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

신의주에 설치하게 될 해양스포츠에 대한 주도권 다툼이 발생.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양스포츠 와 해양관광 또한 문화와 체육의 일부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가 해양스포츠와 해양관광 분야에 전문성이 있으나 자신의 부서에 좀 더 부합되는 사업이라 생각되어 때문에 문체부에서 해양스포츠를 주최할 것을 요구. 이러한 해양스포츠와 해양관광의 설치의 주도권에 관해 문체부와의 갈등이 발생.

7. 해양수산부

가.

경제특구 근무자들 가족 및 경제특구로 경제 전문가들의 교육을 위해 개발도상국에서 보낸 연구원들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부지 및 건설 문제로 국토교통부와 몇몇 마찰이 일 것으로 예상. 경제특구 지역의 경우 거주 구역과 경제 구역만으로도 상당한 부지가 소모되기에 학교 설립 등에 있어서 최소한의 부지사용을 강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지 확보 등에 상당한 갈등이 예상되며 건물 건설 및 교육 예산에 있어서 상당한 예산이 드는 만큼 기재부와의 갈등이 야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기업에서 전문학교 졸업자 채용 및 교사 채용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와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

8. 기획재정부

가.

신의주 국제산업도시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와 함께 중앙 및 지방세를 조율하고, 기업들에 혜택을 제공하는 중앙 기틀을 마련토록 함. 특히 모든 산업기반시설과 공공재 건설을 국비로 충당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한다면 민영(기업+개인)투자를 이끌어내고 이들에게 일정기간 조세면제나 영업이익 분배 또는 경영권을 이전하는 방법 등이 있다. 통관 시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여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누락 현상을 최대한 방지토록 함.

나. 인프라투자건

국토교통부 – 산업시설 기초에 관련한 전기, 수도, 가스등의 기반시설 및 도로, 항만 등의 공공재를 위한 재정을 요구. 이에 재정경제부는 기초 기반시설에 관한 재원만을 승낙.

대안 – 국내 및 해외기업들을 유치하여 계획도시를 건설하기 전 기업들이 인프라시설 확충에 투자를 유도

기획서 샘플

산업통상자원부 – 중국과의 접경지대에 통관시설을 설립하는 것에 대하여 재정 지원.조세면제나 영업 이익 분배 또는 경영권을 이전하는 방법 등이 있다. 통관 시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여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누락 현상을 최대한 방지토록 함.

다. 조세

국토교통부 – 인프라에 투자한 기업들에 대하여 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의 세금들을 직접적으로 일정기간 면제. 또는, 전기나 수도 요금을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 고용주의 4대보험 부담을 줄이거나 금융권에서 낮은 이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간접적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 중국과의 FTA체결로 인한 무관세를 주장하지만, 기타 국가의 무관세 제외품목을 선별하고 검역을 강화를 지시. 출입국관리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상품과 인력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부과할 수 있도록 지시.

라. 통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일정기간 육로를 통한 중국수출과 해운을 통한 수출에 대한 통관세금 부과 면제를 주장.

대 안 – 면제를 허용하면서, 다른 명목으로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생산량의 일정량을 수출하는 조항을 추가.

9. 국토교통부

가.

산업도시 설립을 위한 산업단지 부지 선정 및 마련 문제

나.

육로수송을 통해 신의주에 들어오는 물류 관리를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 문제(경의선 고속철도 설치, 경의고속도로 설치, 부산–신의주 연결 교통망 확립 등)

기획서 샘플

○ 제목 : "통일 10주년, 선진평화강국으로 비상"

○ 안건 : 2) 고구려 역사 · 문화 단지 조성 계획

○ 등장인물 : 대통령,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환경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교육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Ⅰ 추진배경

1. 통일 후 북한지역에 대한 관광 수요가 증가하였지만, 금강산 국립공원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관광 시스템이 조성된 곳이 없다.

2. 고구려는 한반도의 역사이지만, 통일 전 남한에서는 고구려의 문화재를 쉽게 접하지 못하였다. 그렇기에 통일 후 고구려의 문화재를 보고자 평양을 찾는 관광객의 수가 상당하다. 하지만 평양에 고구려 역사 · 문화 관광 시스템이 부족하여 관광객들에 불만이 생기고 있다.

3. 백제의 역사 · 문화와 관련해서는 부여의 백제문화단지, 신라의 역사 · 문화와 관련해서는 경주역사유적지구가 존재하지만, 고구려의 역사 · 문화와 관련해서는 관광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

Ⅱ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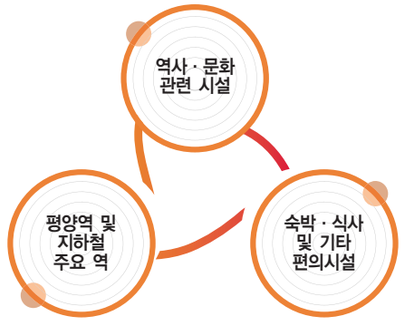
1. 평양시 중구역 내에 위치해 있는 고구려 문화재들과 박물관 및 문화시설, 편의시설을 연계하여 고구려 역사 · 문화 단지를 조성한다. (문화재 및 연계시설 목록 첨부)

2. 고구려 역사 · 문화 단지 유네스코 등재 추진

· 경주역사유적지구를 표본으로 삼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고구려 역사 · 문화 단지 등재를 추진한다.

기획서 샘플

3. 고구려 역사 · 문화 단지 내 교통망 구축



4. 문화재 및 낙후된 관광시설을 재정비

○문화재 소방설비 및 제반안전 시설 재정비

○문화재 관람시설 안전 점검

○주변에 위치한 숙박 · 식사 시설 상태 점검

5. 경주시, 부여군 · 공주시와 함께 삼국 문화제 개최 추진

6. 매월 마지막 달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에 다양한 역사 · 문화 관련 행사 추진

Ⅲ 기대효과

1. 고구려 역사 · 문화 단지 조성으로 평양시 중구역에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관광수입이 생긴다.

2. 고구려 역사 · 문화 단지 조성으로 평양시 중구역 주변의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3. 독재의 상징적인 도시였던 평양의 이미지를 역사의 도시로 탈피시킬 수 있다.

4. 고구려 역사 · 문화 단지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함으로서 중국의 고구려 역사왜곡 프로젝트인 동북공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기획서 샘플

5. 고구려의 역사 · 문화를 회복함으로서 우리 민족은 반만년 역사를 가진 민족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동북아시아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Ⅳ 참고사항

*유관부처 토의사항

1. 외교부

가.

통일 후 한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 국가 브랜드 순위가 큰 격차를 보이므로 문화를 통한 국격 제고를 하고자 함. 고구려 역사 · 문화단지 조성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교부와 협력하여 대(對) 유네스코 외교 강화로 고구려 역사 · 문화 단지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하고자 함. 또한 고구려 역사 · 문화 단지를 조성할시 중국의 외교적 압박이 우려되는데, 외교부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

2. 환경부

가.

고구려 역사 · 문화 단지를 조성한다면, 친수지역인 평양시 중구역에 환경파괴가 우려. 문화체육관광부는 단지 조성으로 인한 대동강 친수지역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환경부와 협력하여 단지를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것. 고구려 역사 · 문화 단지가 친환경적으로 조성된다면, 단지는 역사 · 문화의 학습 공간만이 아닌 여가 · 휴식의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3. 교육부

가.

고구려 역사 · 문화 단지는 경주역사유적지구, 백제문화단지에 이어 삼국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사학습의 장소가 될 것.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교육부와 협력하여 단지 내에서 역사퀴즈, 역사백일장 등 다양한 역사교육관련 행사를 개최할 예정. 또한 고구려 역사 · 문화 단지를 초 · 중 · 고등학생들의 체험학습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기획서 샘플

4. 기획재정부

가.

고구려 역사 · 문화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유지를 회수해야 함. 대규모로 단지를 조성하게 될 경우 많은 토지 보상금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관광객 육성을 위해 도로, 공항 등 필요시 인프라 건설도 불가피. 이에 사유지 구입 보상금과 인프라 건설에 투입되는 자금은 우선 국비로 진행하고, 추후 입장료와 컨텐츠 사용료 등을 통하여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

5. 고용노동부

가.

고구려 역사 · 문화 단지 조성시 인프라 건설에 투입되는 노동 인력을 가급적 북한 출신 국민으로 채용했으면 하는 고용노동부에 의견을 적극적을 검토중이며, 고구려 역사 · 문화 단지 조성 후 문화재 관리인, 문화해설사 등을 가급적 북한 출신 국민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계획중. 건설 노동자 및 문화재 관리인 등을 북한 출신 국민으로 채용할 경우 북한 출신 국민들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6. 국토교통부

가.

세계관광도시로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도로, 철도 등 관련 교통 인프라를 재정비 및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

Ⅴ 첨부

1. 문화재 및 연계시설 목록

문화재	평양성, 칠성문, 대동문, 현무문, 청류정, 을밀대, 최승대, 부벽루, 내리고분, 호남리고분, 토포리고분, 숭령전 등
역사 관련 시설	조선중앙역사박물관, 조선문화보존사 등
문화 관련 시설	평양국제문화회관 등
숙박 시설	평양고려호텔, 양각도 국제호텔 등
식당	옥류관, 청류관 등

3) 대본 샘플 (2015년 최우수상 팀의 예)

대본샘플

국무 회의 대본

–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 토론 안건 : 1) 고구려 역사 · 문화 단지 조성 계획
2) 신의주 국제물류 · 산업 허브 도시 추진

– 팀명 및 팀 대표 이름 : 한맥(韓脈), 대표 김우섭

– 연락처 (H.P) : XXX–XXXX–XXXX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대학생통일북한연구회

대본샘플

S#1. 개회선언

한상윤 대통령 : (전원을 향하며)자, 그럼 오늘 제24회 국무회의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있다. 대통령은 개회를 선언한다.)

S#2. 국민의례

한상윤 대통령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자리에서 일어난다. 음악을 틀며.)

한상윤 대통령 : 국기에 대한 맹세!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 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S#3. 애국가 제창

한상윤 대통령 : 애국가는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 재생) 애국가 제창

S#4. 묵념

한상윤 대통령 : 다음으로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S#5. 대통령 모두 발언

오늘로서 24회 차 국무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2025년인 현재, 특히 5월을 맞아 10년 전의 그 감

대본샘플

동의 물결을 다시 느낄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올 해는 한반도에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해입니다. 한반도의 70년이라는 분단의 역사를 끝내고 통일을 한지 딱 1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예상하고 있지 못하던 통일을 한국은 해내었고 벌써 10년을 맞았습니다.

근 10년간 한국은 사실상 통일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경제의 위기를 시작으로 불안정한 상황은 물론 통일 한국의 재건설 문제에 있어 충돌이 잦았습니다. 이전 정부와 내각의 과감한 시도가 아니었더라면 사회 전체가 흔들리는 혼란의 시기에 머무른 채 한반도의 재성장을 꿈꿀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현 정부도 이를 잘 이어받아 기존에 지향한 투명성을 잘 입증해 내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신뢰를 쌓아 혼란스러운 국민들의 정서와 삶을 더 편안히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각 부처 장관님들과 정부의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통일 한국을 맞은 이후 기존의 남한 지역과 북한지역에 거주하던 국민 사이에 생기는 관계적 갈등이 아직까지도 불안한 경제체제를 뒤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것과 같이 이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지만 10년을 맞이한 현재 다시 통일 한국이 회복세를 찾고 있는 만큼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현재 인적 교류와 관련하여 치안문제의 신속한 해결과 소통 문제의 해결을 각 부처와 정부기관이 나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제 활성화의 불씨가 다소 살아날 기미가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 법안책정에 있어서 계속 연기가 된다면 경제회복은 요원하게 될 것입니다. 국회는 국정을 운영함에 중요합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선택받은 국회는 그 의무와 책임을 통해서 정부의 모든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민생법안 책정과 경제 활성화의 혁신을 위해서 하루빨리 국회도 변화에 적응하며 국민들을 돌아봐주셔야겠습니다.

S#6. 안건1. 고구려 역사, 문화 단지 조성 계획

한상윤 대통령 : 첫 안건은 고구려 역사, 문화 단지 조성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해주시죠.

대본샘플

문화체육관광부 백시현 장관 : (발표)

한상윤 대통령 : 잘 들었습니다. 통일 10년을 맞은 시점에서 새로운 시도의 계획인 듯 합니다. 그럼 이에 대해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 제언해주시죠.

S#7. 환경부 제언

환경부 김재헌 장관 : 환경부에서 먼저 제언하겠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평양은 오랜 역사가 담긴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는 신라와 백제의 문화단지를 조성했었으며 유네스코에 등재된 경력이 있습니다. 과거 삼국의 역사를 살리는 의미에서 환경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안건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 · 문화단지가 조성됨에 있어 고구려 문화를 알리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구역이 대동강을 낀 친수지역임을 이용한 생태환경 조성과 평양 중구역에 위치하는 양각도 국제호텔과 고려호텔의 이용, 대동문 공원 등을 이용하고 추가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저희 환경부는 고구려 역사 · 문화 단지가 거점도시로써 발전한 평양의 도시민들을 위한 친환경적 휴양지의 역할, 역사 · 문화 단지가 친환경적 생태단지의 모습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국토균형개발부와 협력 ·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균형개발부 김우섭 장관 : 고구려역사 · 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국토균형개발부가 협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국토균형개발부에서는 고구려역사 · 문화단지 조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북한지역의 안정화 작업에 힘써왔습니다. 그리고 북한 전지역에 대한 안정화 작업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올해부터는 다시 10년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국토균형개발 2035 프로젝트' 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통일 전부터 북한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투자가 많았던 평양지역에 고구려역사 · 문화단지 조성이라는 명목으로 우선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고구려역사 · 문화단지 조성의 취지와 목적에는 적극 동감하는 바이나, 지금은 낙후된 지역에 대한 재생 및 개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본샘플

문화체육관광부 백시현 장관 : 국토의 균형 개발도 중요하다는 사실은 저희 부처에서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고구려 역사 유적에 대한 단지 조성 사업은 언젠가는 필요했던 사업이였습니다. 또한 기존 역사 · 문화 시설과 문화재를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투입되는 자본에 비해 경제적 · 문화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또한 국가 문화 브랜드 구축을 통해 얻게되는 대외적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적 · 문화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서 국토균형개발부에서 해당 기획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셨으면 합니다.

S#8. 국방부 제언

국방부 최병열 장관 : 의견 없음.

S#9. 외교부 제언

외교부 김려원 장관 : 저희 외교부는 고구려 역사문화단지 조성이 한국의 소프트 외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고구려 역사문화단지 조성은 한반도의 통일이 단순한 영토의 통합을 넘어서 유구한 역사의 통합, 회복으로까지 작용했음을 국제사회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현재 통일이후 10년 동안의 노력으로 한반도는 안정화에 들어갔고 경제적으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높은 경제발전과는 달리 2025년 GFK 국가브랜드지수 순위에서 한국의 국가브랜드 지수는 10위에 그쳤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엄청난 경제성장과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국격 제고와 국가브랜드 가치 창조가 무엇보다 시급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수출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브랜드의 가치가 미래의 수출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가치 제고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고구려 역사문화단지 조성과 같이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개발 사업은 한국이라는 브랜드를 홍보하기에 적절한 도구라고 파악됩니다.

대본샘플

외교부는 우선 고구려 역사문화단지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을 목표로 대(對)유네스코 외교를 강화할 것입니다. 동시에 고구려 역사문화단지를 홍보하기 위해 외교부 소속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고, 재단을 통해 한국 연구 자료를 지원하는 해외한국학 진흥사업과 역사 단행본 발간, 영상물 제작을 진행할 것입니다.

외교부는 고구려 역사문화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중국의 동북공정이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중국의 동북공정은 2007년 2월 종료되었고, 새로운 왜곡사항 출현 및 미시정 사항에 대해 남한의 외교부는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양국은 2013년 6월에 중국의 동북공정과 고구려사에 관한 합의를 담은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통일 후 역사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돌변하면서 다시금 동북공정이 주요 외교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양국 간의 역사문제는 정상회담을 통해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고 원활한 합의와 해결을 위해 준비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백시현 장관 : 고구려 역사 · 문화 단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저희 부처에서도 바라고 있던 사항입니다.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주요업무 중 하나인 문화국가 브랜드 구축에 걸맞게 외교부와 협력하여 대(對)유네스코 외교를 통한 문화국가 브랜드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구려 역사 · 문화 단지를 조성함으로서 생기게 될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외교부에서 적절하게 대응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S#10. 행정안전부 제언

행정안전부 김수현 장관 : 한반도는 과거 유일한 분단국가에서 통일 후 국력이 향상되면서 세계 선진 반열에 진입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인들의 평균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그 여파로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의 흐름 속에서 과거 사회주의 체제 북한의 수도였던 평양으로 관광객 유입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평양은 북한의 수도이자 고구려의 수도였기 때문에 볼거리가 많다는 장점을 지닙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평양의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안정행정부는 2015년부터 인력 배분의 보강분야로 문화재 부

대본샘플

분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산하부처 창조 정부 조직 실을 통해 고구려 역사 · 문화 단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적정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겠고,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백시현 장관 : 네, 알겠습니다. 문화재 부문 인력 보강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와 저희 부처 기획조정실과 추후 논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S#11. 국토균형개발부 제언

국토균형개발부 김우섭 장관 : 저희 국토균형개발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토균형개발 2035 프로젝트를 중시하여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에 집중하여 발전 및 경쟁력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구려 역사문화단지가 조성된다는 가정 하에서는, 평양시 중구역의 SOC 즉,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데 집중을 하겠습니다.

우선 평양시 중구역내 SOC의 노후화로 시설물 성능이 저하됨에 따라 국민안전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평양시의 도로 노후 교량 · 철도시설, 위험도로, 철도건널목 등 사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한 개량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안전관리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평양시 중구역 내 문화재 및 역사 관련 시설물들의 유기적 접근성 향상을 위해 중구역을 횡단으로 가로지르는 지하철 3호선을 설치하겠습니다. 기존의 평양시 지하철의 경우 1,2 호선으로 중구역을 지나는 역은 종단으로 통일역, 승리역, 봉화역, 영광역 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중구역을 종단으로 지나는 지하철 3호선을 설치함으로써 문화재에 대한 교통 편리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화시설의 접근성 증대를 위해 평양시 전체적으로 도로를 추가 설치하고 중구역내 셔틀버스 노선을 다양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백시현 장관 : 해당 사업안에 대해 저희 부처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SOC 보수 사업에 대해서는 국토균형개발부와 저희 부처 문화 도시 개발 과와 협력하여 보다 안전한 고구려 역사 · 문화 단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 평양시 중구역 내 지하철 증설 문제는 안전 문제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와 함께 협의하여 추후 논의했으면 합니다.

대본샘플

S#12. 해양수산부 제언

해양수산부 김종호 장관 : 의견 없음.

S#13. 산업통상자원부 제언

산업통상자원부 이지수 장관 : 의견 없음.

S#14. 교육부 제언

교육부 함지호 장관 : 교육부 장관입니다. 고구려 역사 · 문화 단지를 조성하게 된다면, 경주 역사 유적지구, 백제문화단지에 이어 삼국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사학습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부는 고구려 역사 · 문화 단지 내에 있는 삼국역사박물관(구 조선혁명박물관)과 연계하여 초 · 중 · 고등학생들에 역사교육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백시현 장관 : 예 박물관 연계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 부처 박물관 정책 과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함지호 장관 : 그리고 고구려 역사 · 문화 단지 내에 역사 전문가를 양성 할 수 있는 담덕 문화대학을 설립했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백시현 장관 : 네 담덕 문화대학을 문화재 복원 · 연구기관인 조선 문화보존사와 연계하여 역사 전문가 양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부 함지호 장관 : 네, 알겠습니다.

대본샘플

S#15. 기획재정부 제언

기획재정부 이성욱 장관 : 우선 작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심의해보고 이번 안건으로 인한 추가적 비용 지출이 얼마나 생기는지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집행수준을 고려하여 판단해보고, 행정자치부와 협력하여 중앙세와 지방세 부담을 절감시켜 자체적 개발을 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할 지 조율해보겠습니다. 이번 안건에 대한 최대 지출은 토지에 대한 국가회수로 발생되는 보상비용입니다. 평양 역시 토지 공시가가 높은 만큼 대규모 단지를 계획한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또한 예상되는 관광객의 수요에 대하여 기존의 도로와 공항의 추가비용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우선 건설비용에 대하여 저희 부는 지원하도록 하되, 추후 발생되는 입장료와 컨텐츠 사용료 등의 수입은 자율적 순환 대신 국가에서 회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만약 문체부에서 이를 또 다른 투자를 위한 잉여금으로 보유하고자 할 경우에는 추후 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S#16. 고용노동부 제언

고용노동부 신동화 장관 :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북한 지역 출신 국민들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구려 역사 · 문화 단지 조성 시 인프라 건설에 투입되는 노동 인력의 60% 정도를 북한 출신 국민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고구려 역사 · 문화 단지 조성 후 문화재 관리인, 문화 해설사 등을 가급적 북한 지역 출신 국민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백시현 장관: 예, 알겠습니다. 인프라 건설시 투입되는 대부분의 노동 인력을 북한 지역 출신 국민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문화재 관리인, 문화 해설사 등의 채용 문제는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본샘플

S#17. 안건2. 신의주 경제 특구 개발

한상윤 대통령 : 다음 안건은 신의주 경제 특구 개발에 대한 안건입니다. 기존에 북쪽 지역에서 경제 특구 개발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현재 통일 한국에서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경제 회복기를 맞은 현재, 경제 특구 개발을 통해 한반도의 경제 성장을 전 세계에 표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신업통상자원부 장관님 발표해주시죠.

산업통상자원부 이지수 장관 : (발표)

한상윤 대통령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 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S#18. 환경부 제언

환경부 김재헌 장관 : 환경부에서 제언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이 세계 거점도시로의 성장을 위한 사업인 만큼 미래 지향적인 도시 개발을 위해 환경부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첫째,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건물이 친환경적 원자재를 사용하고 있는지, 건설이 되고 난 뒤에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 · 검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계속해서 지적되었던 절차상의 요식행위에 그쳤던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사전과 함께 사후에도 조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둘째,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과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으로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가능하게 하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건물을 건축함과 동시에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통한 한국형 스마트 공장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의 성장목표 중 하나인 저탄소 · 녹색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셋째, 거주지 건설문제에 있어 앞에 계시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균형개발부 등과 연계하여 에너지 자립형 에코에너지시티를 건설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건물 일체형 BIPV형식의 태양광 발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의 값싼 태양광 셀 모듈의 개발로

대본샘플

'그리드 패리티' 현상이 도래하였기 때문에 과거보다 싼 값에 에너지 자립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혐오 · 기피시설로 취급받던 쓰레기 소각장 · 매립지, 폐기물 처리장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 순환체계를 구축하여 님비현상의 극복과 에너지 공급,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미래 지향적인 도시로의 발전도 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긍정적인 방안 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현재 건물 내 에너지 통제 기술이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고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신기술이므로 일단 주요 건물부터 시행하여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 김재헌 장관 : 예산 편성문제로 인해 앞서 제언한 내용을 점진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하지만 에너지 자립형 에코에너지시티를 건설하기 위한 BIPV형식의 건물의 건축과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을 초기에 도입하지 않는다면 추후 에 발생할 환경문제의 처리비용, 그리고 추후 도입 · 개발비용이 초기보다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이성욱 장관 : 장기적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를 통한 발전이 최선임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앞선 장관님들의 발언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술적인 문제와 추가발생비용을 예측하기 어렵고, BIPV형식의 태양광 발전아파트가 일사량이 적은 신의주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하였을 때 중 · 단기 비용에 대해 얼마나 효율적인지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중남부도시에 신설 · 재개발 아파트나 R&D센터에서 연구 성과를 보인 뒤 시행하는 것이 낫다고 보입니다.

국토균형개발부 김우섭 장관 : 국토균형개발부 장관: 국토균형개발부에서도 실질적인 공사를 진행하는 부서로써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과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BIPV형식의 건물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도입비용, 기술적 어려움과 안정성의 문제가 존재하므로 일부지역의 건물에 점진적인 시범 도입을 통해 그 안정성과 기술성을 검토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본샘플

S#19. 국방부 제언

국방부 최병열 장관 : 저희 국방부에서는 이번 신의주를 국제 산업 · 물류 허브도시로 개발하는 안건에 대하여 신의주 지역에 군사적 위협에 대한 안정에 대해서 생각해보았습니다. 일단 신의주를 중심으로 타국과 무역을 펼치려고 하면 우리나라로 입국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테러입니다. 요즈음 테러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국방부에서는 하나의 기업으로 위장을 해서 입국을 하여 테러를 하는 집단이 많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이것을 미리 막으려고 합니다.
먼저 군부대를 설치하는 것인데, 지금 신의주와 중국이 연결되어있는 다리마다 출 · 입국 관리사무소가 법무부 주관 하에 설치가 될 것이고, 국방부는 관리사무소마다 군 병력을 배치하고, 중국과의 접경지역에도 항시 대기를 함으로써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테러를 방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의주의 방위 치안과 함께 군부대의 병력을 함께 배치함으로써 테러에 대한 빠른 예방을 목표로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신의주 공항과 관련하여 안건을 내려고 합니다. 신의주가 국제 산업 · 물류의 도시로 발전을 하게 되면 신의주 공항이 국제공항으로 바뀌면서 그 역할을 하게 될 텐데, 현재 신의주 공항을 신의주 중심부로 새로 건설을 하여 이전을 하고, 현 신의주 공항을 시설 개보수를 통해 군부대를 설치해서 상황에 맞게 알맞게 대처함으로써 국방을 더 튼튼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국토균형개발부 김우섭 장관 : 저희 국토교통부에서도 국제산업 · 물류 허브도시로 변모되는 신의주의 위상에 걸맞게 국제공항을 유치시키는 것에 찬성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신의주 국제공항 유치와 관련하여 우선 공항 건설 후보지를 조사하는 작업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20. 외교부 제언

외교부 김려원 장관 : 신의주 국제 산업 · 물류 허브도시의 발전을 위해 외교부는 외자유치에 힘쓸 것입니다. 국제 산업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투자 및 수출입이 가능해야하며 과도하고 불필요한 과정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외교부 소속 다자 경제 외교 국에서는 세

대본샘플

계 다수의 국가들과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할 것이며 이 중 투자보장협정, 사회보장협정, 해운협정을 체결할 것입니다. 투자보장협정은 안정된 투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할 수 있고, 사회보장협정 또한 양국 간 근로자 교류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의주는 항만물류도시로 기능할 계획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해운협정이 중요합니다. 해운협정에는 항만 내 최혜국대우, 선원의 임시상륙과 영역통과, 해운공동위 구성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보장이 외국기업유치와 외자유치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방부 최병열 장관 : 다른 외국 기업과의 무역에서 아무리 믿을만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외국 바이어나 선원으로 위장을 해서 들어와 테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소지품 검사라도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 김려원 장관 : 테러 위험이 완전히 없다고는 장담할 수 없지만 협정을 맺은 국가 내에서도 신뢰성 있는 외국 기업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 선박의 선원인 경우에는 선원수첩으로 신원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테러에 대한 위험성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 김종호 장관 : 외교부의 주장과 같이 외국인들의 국내로의 출입이 완화 된다면 해양 여객산업이 활성화 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해양수산부에서도 외교부와의 입장을 같이 하는 바입니다.

S#21. 행정안정부 제언

행정안전부 김수현 장관 : 먼저 저희 행정안전부는 신의주가 국제 물류 · 산업 도시가 되었을 경우, 주요 건물 및 공장, 그리고 인물이 테러 대상이 되는 위험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군부대를 설치한다는 국방부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치안을 군이 담당하는 것은 신의주시가 분쟁지역인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해외 바이어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

대본샘플

외자본을 유치하는데 방해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행정안전부는 산하 외청인 경찰청을 통해 경찰병력을 배치해서 치안을 유지하는 것을 국방부에 건의하는 바입니다.

국방부 최병열 장관 : 그럼, 신의주 방위 치안에 대한 담당을 행정안전부에서 맡는 대신에 국방부에서는 예를 들어 부대 내에서 5분 대기조와 같은 것을 편성해서 긴급 시에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법무부와 협의를 봐서 출 · 입국을 하는 모든 외국인들에 대한 출 · 입국 규제를 강화하여 돕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김수현 장관 : 알겠습니다. 그럼 행정안전부는 유사시에 국방부와 경찰청과 협조하는 체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 최병렬 장관 : 네, 알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김수현 장관 : 저희 행정안전부는 신의주 국제 산업 · 물류 도시를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각종 정보를 개방할 것입니다. 파급효과가 높은 고가치 · 대용량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신의주시에 특히 필요한 부동산, 교통, 건축 관련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산하 부처 창조정부조직실에서는 수요가 높은 여러 핵심데이터를 표준화하고 품질을 고도화하여 배포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 데이터를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다국어로도 제공하여, 국제적 투자 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에 2025년 데이터 개방 주요내용을 표로 정리해놓았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본샘플

구분	분야 명 (개방 규모)	개방내용
1	부동산 종합정보 DB (750만건)	토지(임야)정보, 공시지가, GIS통합정보(전국 750여만개 이상의 건축물 및 공간정보 융합) 등 23종 정보를 공간정보 기반으로 통합 개방
2	전국 상가 DB (490만건)	LG U+, 다음, KB국민카드 등 20개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여,’25년까지 상가데이터 오류율 5% 절감, 상가좌표, 전화번호 등 개방
3	국민건강정보 DB (2,3 00억건)	진료 · 투약 · 검진 등 개인건강정보(PHR) 오픈API 제공, 건강표본DB(비만, 치과 등) 15종 구축 · 개방
4	농수축산물 가격 DB	농축수산물 경락 · 유통정보 원천데이터 9종 전면개방, 오픈API 9개 구축, 품질개선 및 표준화 등
5	지자체 행정 DB (13억건)	음식점, 세탁소 등 주민생활 밀접 인허가 데이터 720종을 창업활동 정보로 제공 · 활용
6	건축행정시스템 DB (680만건)	건축물 도면 · 유지점검 · 사용정보 · 에너지소비 등 18종 추가 개방 및 통합정보 유통체계 구축, 오픈 API서비스 기능 10종 신규 개발
7	등산로 · 국가생물종 DB (650만건)	전 지자체 등산로 DB 4,162개 구축 및 통합관리체계 확립, 생물종 DB의 단계적 확충 (650만개 → 773만개)
8	교통정보 · 교통사고 DB (50만건)	교통사망사고 위치정보, 스쿨존 등 사고다발지역 정보를 신규로 제공하고, 돌발정보, 안전정보 등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9	실시간 수도정보 DB (5,000만건)	전국 수돗물 공급 전과정(취수장→수도꼭지)의 실시간 수질 및 물 공급량 정보 등 총 37종을 오픈API 서비스 제공
10	수산물 DB	수산물 규격화 및 품질개선 통해 생산 · 재고 · 수입, 가격 등 유통정보 15종 개방

행정안전부는 김수현 장관 : 다음으로 신의주시를 특별자치시로 승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특별자치시가 되면 각종 사업 및 예산집행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경상남도 울산시가 울산광역시가 되기 원했던 가장 큰 이유도 예산 집행 때문이었습니다. 특별자치시로 독립하게 되면 자체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환경개선과 도시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에 유리합니다. 국제 산업 · 물류 허브도시로 비약하고자 하는 신의주시에 있어서 광역자치단체로의 승격은 엄청난 발전을 가져오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신의주시를 특별자치시로 승격시키는 것을 제안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지수 장관 : 신의주를 특별자치시로 승격하는 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및 세계 물류 허브 도시인만큼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도시의 행정적 위치가 높은 것이 해외 기업 유치에 충분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본샘플

국토균형개발부 김우섭 장관 : 그렇지만 균형발전을 꾀하는 저희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개발되어있는 신의주시를 특별자치시로 승격시키는 것에 반대합니다. 이는 작년 국정방향으로 설정한 국토균형개발 2035 프로젝트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또한 특별자치시로의 승격은 해당 지역에는 이득일 수 있으나 승격 전 소속되어있던 평안북도 입장에서는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의주를 특별자치시로 승격하는 건에 대해 반대합니다.

행정안전부 김수현 장관 : 국토균형개발부 장관님의 발언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장관님의 주장에 동의하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다보니 그동안 통일을 맞이하여 지방자치제 시범 시행 이후 이렇다 할 특별자치시 승격은 없는 상태입니다. 통일 10년을 기념하여 터닝포인트 차원에서 신의주시를 특별자치시로 승격시켜 거점지역으로 만든다면,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평안북도와 그 이후의 지역까지 발생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의주시를 특별자치시로 승격시키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지수 장관 : 물론 국토균형 개발부장관님께서 반대하는 의미는 알겠습니다. 허나 현재로서 신의주를 제외하고 북쪽 국경선 근처에 산업 인프라가 구축된 지역이 없습니다. 특히나 G2로서 부상한 중국과의 무역 및 유럽 및 몽골지역에 대한 물류 허브를 위해서는 이미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는 신의주를 승격하여 특별 자치시로 선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신의주의 특별자치시로의 승격은 신의주의 행정상의 위치 상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외 기업 유치에 있어서 대외적 이미지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그리하여 해외 기업 유치에 큰 이점을 제공할 것이므로 특별자치시 승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상윤 대통령 : 여러 경제적, 사회적면을 고려하면 신의주의 특별자치시로의 승격이 필요하고 진행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는 성급히 결정할 문제가 아니므로 더 지켜보고 심도 있는 논의를 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의에 관해서는 추후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본샘플

S#22. 국토균형개발부 제언

국토균형개발부 김우섭 장관 : 저희 국토균형개발부에서는 고구려 역사 · 문화단지 조성과 달리, 신의주 국제물류 허브도시 추진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새로운 성격의 도시문화를 형성하는 고구려 역사 · 문화단지 조성과 달리 신의주는 현재 실제적으로 동북아 물류산업의 허브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정책적 차원에서 산업도시로써 성장, 발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의주만큼이나 나선지역 역시 물류산업의 허브 역할을 크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나선지역을 국제산업 · 물류도시화 하는 것에 대한 검토는 없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이지수 장관 : 나진선봉지역의 경우 해양 플랜트 위주의 개발이 이루어졌고 현재 나진 선봉지역의 항만 물동 처리량도 생각보다 증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한 세계 G2 국가인 중국을 경유하는 육상물류허브가 상당히 중요하므로 나진선본지역보다는 신의주에 국제물류허브지역을 설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균형개발부 김우섭 장관 : 알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통인프라 확충에 있습니다. 2023년, 한반도종단철도(TKR)의 연결사업이 완공됨에 따라 경의선과 경라선의 철도가 복원 및 개보수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륙간의 연결과 함께 아시아의 자본과 자원을 유럽 시장과 연결해 주는 등 세계의 물류 혁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일반철도선을 연결한 것에 불과해 시간적 측면에서 상당시간 소요된다는 점에서 수송 효율성이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바탕으로 작년부터 추진된 것이 고속철도 경라선 건설사업입니다. 부산에서 서울을 거쳐 나진으로 연결되는 고속철을 러시아 시베리아철도(TSR)로 연결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라선 고속철도가 놓이게되는 나선에 국제산업 · 물류도시를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현재 경라선 연결 사업은 알고 있습니다. 허나 앞서 말했듯이 경라선은 러시아와의 직통이 되는 사업이고 신의주 사업의 경우 국제 물류 허브로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즉 러시아와의 물류 위주인 경라선과 달리 경신선의 경우 한반도 종단을 통한 세계 무역에서 상당한 물동량을 처리하는 부산과 육로를 연결하는 거대한 물류선이 될 수 있으며 중국과의 근접한 지리적 요건

대본샘플

으로 인해 중국을 통한 거대한 무역 활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진선봉지역과 신의주 지역의 연결을 통해 러시아와 중국을 잇는 대규모 무역 활로가 생기기 때문에 고속철에 사업에 있어서 경의선 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경라선 고속철도 건설 사업과 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상윤 대통령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렇다면 기존의 경라선 고속철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의선 고속철도 사업을 병행하는 것이 예산적으로 가능한 상황입니까?

기획재정부 이성욱 장관 : 그 동안 여러 나라들의 선례를 보더라도 국경의 교통선이 간소화되고 편리한 경우 정부의 행정업무와 안보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신의주와 나선을 잇는 철로 건선을 염두하고 경의선과 경라선의 고속철도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추가비용이 들지 않도록 중남부지역과 중국, 러시아의 철로들과의 연계적 운행이 가능한지 검토해주시고, 신의주는 물류뿐만 아니라 인적 수송 비중도 높다는 점에서 차별적 예산 편성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균형개발부 김우섭 장관 : 예산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경의선 고속철도 건설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세부 계획은 추후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김재헌 장관 : 한 말씀만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라선과 경의선은 환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지역들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한반도 종단 철로 구축을 위한 철도 개보수 작업 시에도 많은 환경적 문제 예를 들어 소음 공해 및 주변 환경 파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환경적 문제에 대한 국토부의 추가 조사 및 연구가 있어야 합니다.

국토균형개발부 김우섭 장관 : 예 알겠습니다. 환경적인 피해가 최소화 되는 방식으로 고속철도선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본샘플

S#23. 해양수산부 제언

해양수산부 김종호 장관 : 신의주 국제 산업, 물류 허브도시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맡을 수 있는 역할은 항만의 설치 및 관리와 해양 관련 레저스포츠와 여객선박 설치를 통한 관광산업 인프라 형성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의주는 국제 산업 물류 허브도시로써 국제적인 물류의 이동을 맡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국제적인 항만 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부처의 항만의 적합성 조사에 의하면 신의주는 국제적인 물류를 수용할 수 있을 만한 항만 건설을 하기에는 여러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신의주에 국제적 항만을 건설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신의주의 국제적 규격의 항만 건설이 부적합한 지리적, 자연적 이유로써 항만 건설지인 압록강의 지형적 불충분을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최근 국제적 규격의 항만은 물류 운송수단인 배의 거대화의 추세에 따라 깊은 수심과 폭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신의주에서 항만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강인 압록강은 수심이 3m에 불과하며 폭은 500m에 불과하여 500톤급 소형선박 이외의 물류운송을 위한 거대선박이 들어오는 것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신의주는 압록강의 하류에 위치하여 퇴적토가 쌓여 항만의 수심이 지속적으로 얕아져 퇴적토를 정기적으로 치워야한다는 문제점도 존재하여 항만건설에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일례로 부산항은 기존 16m의 수심의 항만 이였으나 국제적 추세인 1만2000t eu급 이상 거대 선박의 출입을 가능하게 하며 항만의 경쟁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수심을 17m로 확장하며 항만을 정비 하였습니다. 단 1m의 수심확장을 위해 4년 이상의 건설 기간과 4648억원의 건설비가 소요되는 사례를 볼 때 현재 수심이 3m에 불과한 신의주 근방의 압록강에 항만을 건설하는 것은 비경제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둘째로, 신의주가 위치한 위도에 의한 겨울철 기온으로 인한 압록강의 결빙 문제를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자연적인 문제점을 확대공사를 통해 인위적으로 폭과 수심을 확대 한다고 하더라도 신의주는 서해안 최북단에 위치하여 1월 평균기온이 영하9.7도 에 이를 정도로 혹한의 날씨가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 12월에서 3월에 압록강이 결빙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배가 운행될 수 없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항만으로써 매우 치명적인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본샘플

신의주에서의 항만을 건설은 서해와 압록강을 통한 중국과의 무역증대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 신의주에 항만을 건설하면서 생기는 손해를 감수할 정도의 비약적인 무역증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대량의 물류 운송을 담당하는 대규모의 국제적인 항만이 아니라 중국과의 교류를 담당할 수 있는 여객을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의 여객용도의 항만을 건설 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와 맞물려서 해양수산부의 역할로써는 해양관련 레저스포츠와 여객선박의 설치를 통한 관광산업 인프라의 형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신의주가 국제 산업 물류 허브도시로 발전하게 된다면 신의주는 눈부신 성장세를 보이며 많은 국내의 기업들과 해외기업들이 입주하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게 된다면 자연스레 사람들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를 필요로 하게 될 것 입니다. 그러한 점을 충족할 수 있는 문화중 하나 로써 해양 레저 스포츠와 여객을 들 수 있을 것이며 신의주는 해양스포츠와 해양 여객이 발달할 수 있는 많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첫 번째로, 신의주에 해양 여객이 발달 할 수 있는 이유로서 서해와 압록강에 근접해 있어 중국과 교류 할 수 있는 잠재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신의주는 중국의 단동과의 거리가 단 500m에 불과해 관광 수요량이 매우 많이 발생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북한 내의 다른 중국 접경지대와 다르게 통일 이전에도 비교적으로 산업 인프라가 비교적 다른 도시에 비해 잘 갖추어져 있어 대도시의 역할을 할 정도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통일 이전에도 중국과의 교류가 많았다는 이점이 있어 중국과의 교류가 수월하게 재개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위와 같이 지형적, 경험적 이점을 이용한다면 중국과의 관광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 신의주의 발전과 인구증가로 인한 레저에 대한 문화적 욕구의 증가를 해양스포츠를 통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신의주는 서해와 근접하며 압록강에 인접하여 있기 때문에 해양 레포츠를 활성화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서해안을 이용한 해양레포츠를 활성화 시키며 국제적인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신의주의 대표적인 레저 문화중 하나로써 발달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의주가 국제 산업 물류 허브도시로써 발달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양레저의 중심 도시로 발달하여 도시의 브랜드가치가 향상될 수 있으며 수시로 해양 스포츠 국제대회를 개최는 것을 통하여

대본샘플

경제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에서 신의주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국제산업 물류도시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뤄내 거대한 도시로 변모 할 것입니다. 신의주에 단순히 산업과 물류에 관련된 시설만이 존재한다면 신의주에 위치한 공장에 종사하는 노동자 이외의 사람들의 유입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압록강과 서해안에 위치하며 중국과 근접한 신의주의 지리적 위치는 해양스포츠레저 산업과 여객이 발달하기에 좋은 조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을 살린다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해양레저 관광지로 부상할 것이며 인구수의 증대 및 도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부의 제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백시현 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입니다. 해양수산부 장관님께서 신의주 국제 산업 · 물류 허브도시에 해양관련 레저스포츠를 유치하신다고 하셨는데, 레저스포츠 관련 정책은 지금까지 저희 부처가 추진해왔습니다. 이 정책을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시면, 저희와 업무적으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해양수산부 김종호 장관 : 해양관련 레저스포츠는 저희 부처의 해양정책실 해양 레저과에서도 관할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장관님께서 해양레저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였더라도 저희 부처 해양레저에 대한 정책을 관할 및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백시현 장관 : 해양수산부에서는 단순 해양레저과지만, 저희 부처는 관광개발기획과, 관광개발지원과, 관광레저기반과 있어서 정책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규모가 다릅니다. 과연 해양수산부 혼자 힘으로 신의주 국제 산업 · 물류 허브도시에 걸 맞는 해양레저산업을 유치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 김종호 장관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해양 정책실 해양 레저 과와 문화체육관광부 관련부서와 논의 후 협력정책으로 추진하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백시현 장관 : 네, 알겠습니다.

대본샘플

S#24. 교육부

교육부 함지호 장관 : 교육 · 문화 산업의 중심지라는 점과 신의주 내 외국인 거주의 비율이 증대돼 왔다는 점을 바탕으로 신의주 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유치원, 학교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의주가 국제화, 세계화를 선도하는 동북아 교육의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국제 산업 · 물류 허브도시의 근로자의 자녀들을 위한 일반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기본으로 합니다. 국제적인 도시가 될 신의주에 외국인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게 되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증대될 것이며, 여기 신의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 산업 · 물류 도시의 이미지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 유치원과 학교를 한 곳에 병합하여 최소한의 부지에 최대의 효율을 이끌어 낼 예정이며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과거 대한민국의 허울뿐인 외국인 유치원, 학교가 아닌 학생 정원 대비 외국인 비율이 최소 70%를 넘게 하기 위한 체제 구축 또한 할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지수 장관 : 교육부의 외국인 학교 건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외국인 유치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분야이므로 관계 부처 간의 협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S#25.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장관 : 신의주는 과거 특별 행정구로 지정된 바 있지만 현재 시설의 낙후와 주민들의 민간 무역으로 총체적인 계획 개발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저희 부는 신의주를 국제산업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와 함께 중앙 및 지방세를 조율하고 기업유치를 위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중앙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천에 버금가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산업기반시설과 공공재 건설을 국비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충당이 불가능하거나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이 들 경우 기업이나 개인의 민영투자를 이끌어 이들에게 일정기간 조세면제 · 영업이익 분배 · 경영권 임대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겠습니다. 또한 통관 시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여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누락 현상을 최대한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산업시설 기초에 관련된 전기 · 수도 · 가스등의 기반시설 및 도로 · 항만

대본샘플

과 같은 공공재 건설이 필요합니다. 저희 부서는 기업유치를 위해 유인요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이를 통한 국가 재정의 효과적인 분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로부터 인프라시설 확충에 필요한 투자를 이끌어내고 이들에게 법인세 ·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를 일정기간 면제시켜주는 직접적 지원과 전기 · 수도 · 가스와 같은 생산자원 부분에 국가 보조금을 지급 · 고용주의 4대보험 부담 절감 · 금융권 저이자 대출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여러 가지 간접적 지원을 고려해보겠습니다. 나아가 기업유치를 위해 일정기간 육로와 해운을 통한 수출 통관세 면제의 대안으로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생산량의 일정량을 수출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서 재정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의 FTA체결로 인한 무관세품목 외에 기타 품목들에 대하여 검역을 강화하여 조세 누락을 최대한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S#26.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신동화 장관 : 고용노동부장관, 신동화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안한 새로운 고속철도를 놓아 (중국 단동, 러시아의 모스크바를 지나는) TCR과 연결하는 철도건설계획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 철도는 분명히 통일된 대한민국을 아시아는 물론 유럽 물류산업의 중심축이 될 기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철도를 건설하는 데 있어 필요한 노동력에 지역민들을 우선적으로 40% 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남한지역에 비해 경제적으로 열악한 북한지역 주민들이 경제적인 자립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교통고등학교나 철도고등학교 등의 공식적인 학교기관을 졸업한 노동자들은 공식적인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학교를 설립하기를 교육부에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철도를 건설하는 데는 단순 노동직인 시설직이나 역무직의 단순 업무와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차량직, 전기직 등이 있습니다. 단순 노동직은 어깨가 튼튼한 사람들을 고용하면 그만이지만 전문직의 경우는 철도나 열차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지역민들을 단순히 철로를 건설할 때만 사용하는 일회적인 노동력이 아닌 전문가로서 꾸준히 일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주어야 할 것입니다.

대본샘플

S#27. 문화체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백시현 장관 :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신의주 국제산업 · 물류도시에서 해외 바이어 초청 시설로 활용하실 동유초도에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사업으로 한옥호텔을 건설했으면 합니다. 송도 국제도시에 건설된 한옥호텔 경원재를 표본 모델로 삼아 신의주 국제산업 · 물류도시에 한옥호텔을 건설한다면, 우리 문화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 외국 바이어들에 마음을 사로잡는데, 효과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지수 장관 : 좋은 방안입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외 바이어들에게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S#28. 마무리

한상윤 대통령 : 그럼 논의를 마치고 지금껏 나온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논의한 안건에 대해 인트라넷을 이용하여 투표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한다) (ppt로 투표를 발표한다)

첫 번째 안건 : 고구려 역사 문화 단지 조성 기획안은 찬성 8명 기권 2명 반대 2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안건 : 신의주 국제 산업 물류 허브도시 건설 기획안은 찬성 10명 반대 2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모든 국무위원님들께서는 추진결정이 완료된 두 안건에 대해서 추후 각 부처의 계획안을 통해 조금 더 구체적인 방향설정을 해주시고 실행화 단계로 옮겨 가주실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24회 국무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수상 수기

[2015년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 수상팀]

통일의 가치를 알리다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최우수상「신의주 산업도시화 및 고구려 역사 · 문화단지조성」
(고려대 북한학과 '14학번 이지수)

통일 모의국무회의를 참가하기 전 과연 우리는 통일에 대해 관심이 있는가라는 회의감이 머릿속을 떠난 적이 없다. 북한학과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공부하는 과목과 강의 모두 통일을 위한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20대 대학생들에게 통일이란 너무나도 동떨어진 이야기일 것이다.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필자가 다니던 학교도 그만두고 북한학과에 온 것은 통일을 위해 일하겠다는 의지가 아니었다. 그저 기자라는 꿈을 위해서 한국의 정치, 안보를 공부하기 위해 북한을 공부해야한다는 생각으로 북한학과로 옮겨왔을 뿐 통일을 위해 일해야겠다는 생각은 단 한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 북한학과로 옮겨온 후 과연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 했지만 역시나 통일에 힘쓰겠다는 대학생들은 너무나 극소수였다. 그러한 고민을 하던 차에 모의 국무회의 대회에 참가하자는 말을 들었고 북한학과이자 대학생 통일 북한연구회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아니면 누가 나가겠느냐 라는 허영심으로 참가하게 되었다.

주제를 정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대본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서로간의 생각차이로 인해 충돌되는 것이 많아 준비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같이 통일 이후를 생각한다는 점에서 너무나 뜻 깊은 시간이었다. 필자는 통일 이후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언제나 통일 이전인 현시점을 생각하고 북한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을 고민했을 뿐 한번도 통일 이후를 생각해본 적이 없기에 통일 이후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이 자리는 너무나 뜻 깊을 수밖에 없었다.

학생들이 통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회의감도 다른 팀의 발표를 들으며 깨지게 되었다. 예선은 다른 팀의 발표를 들을 기회가 없었지만 본선 이후 두 팀의 발표를 들으면서 정말로 많은 공부가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주제이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기존에 가지던 회의감이 어느 정도 희석되었다. 물론 모든 팀들이 학부생으로 이루어졌기에 조금은 틀리거나 모자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허나 학부생들이 모여 통일 10년 후를 생각한다는 것은 통일을 향한 국민적 총아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는 밝은 징조일 것이다.

이번 통일 모의국무회의를 통해 나 스스로 통일에 대해 생각해보고 함께 공부하는 우리 세대의 통일 관심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통일이 무엇인지 통일 비용이 아닌 통일 투자라는 표현이 국민들에게 정착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래본다.

통일을 전제한
통일한국의 비전을 그리다

우수상「DMZ 평화클러스터, 실크로드 경협지구 조성」
(건국대 융합인재학과 '13학번 신지수)

타임머신을 타고 5월 30일로 돌아가 보자.
'비상하라. 세계로 뻗어나가는 통일한반도'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팀은 통일 모의국무회의를 시작했다. 결과는 정말 운 좋게도 2등을 했다. 통일국무회의 수기를 작성해달라는 말을 들었을 때만 해도 내 짧은 식견으로 과연 가능할까 생각도 들었지만 내 솔직한 감정과 경험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 글을 써 보기로 했다.

통일국무회의는 내가 여태까지 해보지 않은 대회였다.
그만큼 신기했고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처음부터 고민을 많이 한 대회였다.
현재까지 통일에 관한 대회를 살펴보면 그 범위가 고정적이었다. 통일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원하거나 혹은 좀 더 학술적인 것은 통일비용에 관한 것이었다. 물론 그러한 공모전을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통일한국에 대한 비전이나 청사진을 잠깐 언급하긴 했어도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대회는 없었다.

그런데 이 대회가 통일한국에 대한 비전을 바로 언급한 대회였다. 통일 후 10년 후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통일 정책을 펼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라는점에서, 이 대회가 통일을 해야 한다는 한계에서 벗어나 통일을 전제한 통일한국의 비전을 그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적중했다.

결선에 진출하고 3팀 모두 대학생다운 생생한 느낌을 전달했다.
'고구려 유적' 을 활용하자는 한맥 팀, '백두산 폭발' 을 가상적으로 가정해 이에 대해 훌륭하게 시나리오를 짠 'ucc' 팀,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일한국과 스마트시티를 접목시켜 'ict의 새로운 비전' 을 보여준 '북키스트팀' , 위 3팀의 시각은 훌륭했으며 통일한국의 청사진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통일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가 성황리에 열리길 기원한다.
1회밖에 안했지만 이 대회가 5회 10회가 된다면 현재 통일전문가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통일에 대한 청사진을 찾을 수 있고 대학생들의 통일시각이 어떻다는 것을 정부가 좀 더 알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학생들에게 한명의 장관, 대통령 역할을 맡아본다는 것은 어디서나 볼 수 없는 흔치않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들이 결국 성장해서 사회를 이끌어가는 세대가 될 때 통일모의국무회의의 경험은 통일한국의 정책을 위한 씨앗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간절한 희망으로 내년에도 열리길 기대해 본다.

통일부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 **길라잡이**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 길라잡이

발 행 일 2016년 4월
발 행 처 통일부 통일교육원 학교통일교육과
0101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전화 02)901-7075, 팩스 02)901-7073

디자인 · 제작 반월문화사 02)2274-2158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www.unikorea.go.kr